

第 55 回
安山市議會

安山市老人福祉會設置及運營條例制定을爲한公聽會 第 2 號

安山市議會

日時 1996年 12月 21日(토)

場所 議會大會議室

(10時10分 開會)

○司會者 盧鈴鎬議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산시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노영호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노인복
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좌측 상단
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
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선호위원장입니다.

먼저 공시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시고 이
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전문가를 비롯한 각종
노인회 회장님 및 노인복지관계자와 시민여
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우리 안산시에는 노인회관 1
개소와 노인정이 시립 35개소, 사설 노인정
90개소로 안산시 인구증가 추세 및 시세확
장을 볼 때 앞으로 계속 노인복지 수요가 늘
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던 차에 지난 53
회 임시회의시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노인회
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산
시장이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현재 노인회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취미오락실, 노인정의 시설
을 주간 노인보호실, 상담실, 취미교육실, 이·미
용실, 컴퓨터 교육실로 변경 설치하여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 하다고는 사료되나 주간 노
인보호실 운영시 위탁운영자의 전문성 결여 및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고 현행
조례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근거 미흡 등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던
중 노인복지사업의 질적향상과 내실화를 위
해 제정하는 바람직한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에 대한 설치운영과 비용의 보조 및 지원에
대한 기준과 자격요건을 지역여건과 시 재정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사료되어 추후 충분히 학계 전문가, 주
민여론,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실용적인 조례
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
어, 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체의원
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몇몇의원이 집중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박종
원의원과 한만식의원이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안산시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이렇게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원만히 이루어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시가 보다 윤택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공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박종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후 조례안에 대한 의문점 또는 문제점 등을 토의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위해 의견을 개진해 주실 관계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고양곤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군자사회복지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산시 노인회장 김인기님을 소개합니다.

안산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님을 소개합니다.

안산시의회 박종원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실 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호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영웅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장훈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노세극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한만식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호명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만승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박종원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鍾遠議員 박종원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복지회관 설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또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추세로 보면 인구의 노령화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활동과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기존의 노인회관을 노인복지 증진과 건전한 노인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상담을 통해서 노인들의 번민과 소외감을 해소시켜 드리며 또한 사회참여를 충족시키며 노후의 여가시간, 역할상신, 건강의 악화, 수입절감 등의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로 대부분의 여생을 보내시고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많은 삶의 활력과 자기 계발을 추구하고 신체기능 노화방지와 인격함양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현재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기존의 노인회관을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실이라든가 어려운 생보자 노인분들, 영세민 노인분들, 회관을 이용하시는 여러 노인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이·미용실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동 불편한 노인, 허약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정신적인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사업이 있지만 거기에 따른 중풍, 치매노인의 보호자 되시는 분들의 교육, 현재 사회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노인분들에게 사회교육을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기존의 노인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를 위시하여 위원장님 많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분들을 좀더 다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끔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노인분들이 최대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노인분들, 주위에 소외되신 노인분들을 홍보해서 가지고 앞으로 주간보호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각종 다양한 취미교육, 취미활동을 여러 가지 장소는 협소하나마 저희들이 최대한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오늘 이 자리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노인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 저희 위원회나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박종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양해 아래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인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때에는 제한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가급적 안전의 범주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남대학교 고양곤교수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고양곤교수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 계신분들 제 이야기 잘 들립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강남대학교 캠퍼스가 용인 신갈에 있습니다.

강남대학교는 1953년에 사회사업학과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 동안에 과거한 40년 이상 동안 사회사업가들을 배출해냈고 1992년에 노인복지학과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노인들을 보살피는 전문요원 양성하는 노인복지학과를 만들어서 금년에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노인복지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고양곤입니다.

박종원의원님의 전화, 팩스를 받고 검토한 것을 잠깐동안 말씀드리고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안산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의원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도 포근하고 아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의원님이 안산시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효도를 먼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러한 표현도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금년에 4월부터 한 50억을 투입해서 가정도우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들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서울시 못지 않게 어른 대접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복지회관 하면 옛날의 노인정이나 노인회관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 혹은 노인복지관 하면 이것은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는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서 안산시에 계시는 노인들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냐,

중풍, 치매노인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필요한지 혹은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이 필요한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해서 전문가로부터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즘에 서울에는 의사까지 투입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와 사회복지사가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치료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면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모여서 취미활동하는 장소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 안에 상주를 하면서 노인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따라 가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쪽 내려가서 2조에 “안산시 노인복지회관이라 한다.” 앞으로는 조례개정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 노인종합복지관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성포동 589번지에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건평이 몇평짜리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건축을 하실 때에는 넓은 평수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건물을 지을 때에는 물론 건축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램프시설이라고 그러합니다.

계단이 아닌 그저 평지로 올라갈 수 있는 램프시설이 필요하고 안산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2층, 3층으로 올리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노인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기본적인 요건이 됩니다.

서울시에도 요즘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엘리베이터를 가설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노인

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더 들지 모르겠지만 램프시설과 엘리베이터시설을 반드시 해 드리면 안산시의회의 의원님들 혹은 시직원들은 노인들의 허약한 체질을 생각해서 소위 엘리베이터시설까지 하는 배려가 있었구나 하는 칭찬을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4조에 가서 업무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노인회,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교 프로그램도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소위 말하는 경로대학, 노인대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 있는 노인대학은 800명, 1,000명 모이는 노인대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노인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곳과 노인들끼리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을 통해서 소위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노후에 많이 배워야, 공부를 많이 해야 치매 예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물론 다 좋습니다.

위락시설 유지관리, 취미활동, 노인건강상담 뿐만아니고 건강교육, 진료, 치료 모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인들을 돌보아주는 사업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4시간 거동이 불편해서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분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보호사업이 있고 대부분 안산시 어르신들 집에 계시면서 집에서 필요한 간병이나 수발을 받을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는데 재가노인복지사업중에 주간보호사업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재가노인복

지사업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간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데 여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을 하나 넣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노인회관에서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간호사들이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짜 가지고 집에 계시는 중풍이나 치매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크게 확장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실 때에는 물리치료사 뿐만이 아니고 작업치료사가 필요하고 간호사, 보조원들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장소를 처음부터 넓직하게 차지해야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장소가 좁으면 하고 싶어도 나중에 할 수가 없고 다시 확장할 때는 돈이 결국 더 들어가게 됩니다.

독서실 운영이 나와 있는데 물론 도서관 시설은 좋습니다만 독서실 운영 보다도 시급한 것이 노인들을 위한 상담실을 확보 한다든지 혹은 간단한 목욕 요즈음에는 물리치료할 때 수치료, 물을 통한 치료가 많은데 이러한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미용실 물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건복지부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통해서 미국에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연방정부 예산에 의해서 미국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급식 프로그램입니다.

점심을 대접하는 이유가 2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노인체질이 되면 하루에 영양식 있는 한끼만 잡수시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잡수셔도 노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영양차원에서 건강차원에서 연방정부 예산으로 노인들이 원하면 어느 분들이고 다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는 아무래도 치매나 중풍이나 혹은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밖에 출입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점심을 잡수시기 위해서 급식,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면 다른 여러 노인들과 같이 하루에 한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노인들을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국연방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급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프로그램은 구태여 안산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아도 소위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교회라든지 혹은 독지가라든지 기업의 자원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끼의 영양식 있는 점심을 대접하면 소위 예방은 치료보다도 거의 10배 효과가 나옵니다.

보통 어른들이 아침에 귀찮아서 식사를 안 잡수시고 점심에는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에 나와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 뛰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잡수시는 그러한 결과로 건강을 잃고 나중에는 큰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는 분이 많이 있는데 하루에 한끼라도 다른 노인들과 같이 모여서 점심을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식 프로그램, 서울에도 약 120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프로그램이 75개가 있고 시 예산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우리 안산 시에도 어른들이 따뜻한 점심 한끼라도 드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인회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노인들은 무료로 드릴 수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은 500원에서 1천원 혹은 1,500원까지도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음식값은 시중에서 4,000, 5,000원 가는 값이지만 대량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분도 자원봉사자입니다.

집에 계셔서 노인회관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도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전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도 조례에 삽입시켜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항목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5조에 가서 시설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시설 설치 운영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시설 규모를 설치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6조에 가서 위탁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설치목적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또는 노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이나 노인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취미활동을 하는 노인회관의 개념과는 노인복지회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재정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능력있는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 과거에 이러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혹은 노인복지회관을 경영한 법인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는 반드시 전문가가 들어가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노인들이 주축으로 시작한 시골의 노인회관을 보면 3~4년 후에는 프로그램없이 발전을 못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문가의 개입이

없이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결국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일단 위탁 운영권을 받았으면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매달 사업보고를 통해서 행정당국과 긴밀한 지도감독하에 하는 게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8조는 그대로 가고 10조에 가서 이용대상자로서 안산시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이라 했는데 물론 노인복지법은 65세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라든지 전통적인 관례에 의하면 60세로 보고 있고 더구나 요즘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를 고령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세를 전후로 근로자의 80% 이상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60세 정도는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자격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조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 권한으로 임대하는 것보다는 역시 위탁운영자가 임대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조례를 보면 모든 일을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위탁운영자가 전문가의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되 시장의 허가하에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는가, 자

울권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조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무 묶어 놔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 운영케 했으며 시설사용에 대한 시장의 허가는 사실상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말에 사업보고로써 그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조에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물론 여기는 시만 얘기 했습니다만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든지 중앙정부 예산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도 쓸 수 있는 조항으로 넣고 또 한가지는 운영하는 위탁시설에서 특히 제가 듣기로는 안산에는 기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민간자원, 종교단체라든지 기업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있는 재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은 노인회관과는 다른 개념으로 회관 관장님이나 요즈음 서울에 있는 종합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관장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 교육을 받고 특히 노인들에 대한 노인복지 교육받는 것을 전제로 이와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관은 운영하는 주축 전문요원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때로는 의사까지도 고용하는 전문직원이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프로그램은 앞으로 집에서 거동불

편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고양곤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군자사회복지회관 관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군자사회복지회관장 김동성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군자사회복지회관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첫번째 의회가 있었고 이번에 두번째 의회가 됐는데 이번에 의회 의원되는 분들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밤을 세워가면서 사회복지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한 것을 볼 때 안산시가 진짜 발전있는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사상에 없던 이런 노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고교수님 말씀대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의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고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이십니다.

1인자이신데 이런 어려운 자리에 와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다 좋은 설명을 주셔서 제가 할 얘기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 안산에서 군자복지관을 하는 실무자로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노인복지회관 보다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그것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군자복지관에도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노인들끼리만 있으니까 활성화도 안되고 모여서 노는 장소로만 되고 해서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안됩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노인분들 누구나 와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편안해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승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고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복지사 등 몇 명을 채용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일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전문법인을 여기다 강조하는 게 뭐냐하면 전문법인에서는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를 합니다.

저희들도 법인을 가지고 안산 군자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끊임 없이 연구개발하고 그해에 한 사업계획을 다시 재평가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계속 재훈련을 시키고 만약에 노인이면 노인들한테 예의 같은 것도 가르쳐 가지고 내보내고 청소년을 관계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같은 것도 교육을 가르쳐 내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화가 되지 않고서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중서부터 소외를 시키게 됩니다. 앞으로는 안산에도 종합복지타운이 만들어져서 노인복지회관도 그 안에, 장애인복지회관도 그 안에, 청소년복지회관도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사는 그런 것이 발전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노인들만 모여있을 때 청소년들이 가서 같이 놀아주고 또 자원봉사자 중년 부인들이 와서 하고 젊은 사람하고 있으면 더 젊어진다고 그래요.

저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만 제가 젊게 사는 원인이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라도 젊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단계이니까 있는대로 운영을 하되 앞으로는 전체적인 종합복지타운이 건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교수님도 많은 제자를 가르칩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나온 애들을 갖다 놓고서 이론으로는 조금 알지만 실제 해보면 한 3년간은 연습기간입니다.

3년 정도 지나야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익어갑니다.

그래서 전문법인이라는 역할이 없이는 아무리 자격있는 복지사들이 와도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잔동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잔동에 노인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 이것도 생각해야지 노인들이 한 분도 없는 데다가 세우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문법인이 노인복지사업을 할 때는 안산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어른들이 얼마나 있고 또 어른들의 상태가 농사를 짓던 사람이 몇 명이고 공직생활 하던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사업을 하던 분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전문법인에서는 하나하나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사업계획으로 해 보다가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해서 복지회관 운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 보다가 이게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전문법인을 욕심을 내지 않고 전문가 훈련을 하고 지역사회 욕구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네들한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법인입니다.

고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법인이 전문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어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프로그램을 안산시 조례에도 뒀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르신네들도 서로 상부상조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협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군 자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이 원하지 않아서 좋은 것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사업은 나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사회 구성원들이 또 주축적이거나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복지의 열매를 맺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예산, 국가예산, 법인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하는데 기왕 어른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김동성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안산시 노인회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安山市老人會長 김인기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복지회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례없는 시의원들이 노인복지관 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고교수님과 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두가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물론입니다.

각 분야에 있어서 모든 게 전문화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노인복지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초년생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전문분야의 자문과 인력을 과감히 채용을 해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써 열심히 한번 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아까 소재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안산시 성포동 58번지 성어공원내에 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은 “안산시에 설치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소재지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제5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1항서부터 6항이 있습니다만 7항서부터는 상담실을 두고 8항에는 공동작업장을 뒀다 되지 않겠느냐 노인들도 각자 모든 분야에서 여태까지 열심히 일하신 풍부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안정고령화시대가 옵니다만 그간 58세, 55세면 벌써 정년퇴직이다. 뭐다 하는데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공동작업장을 하나 뒀으면 이런 의안이고 9항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식당 및 조리실 다시 얘기해서 무료 급식실이 절대적으로 노인사회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항을 제5조에 삽입을 해 주시고 또 무료진료실 설치문제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제일 필요를 느끼는 게 치료 노인병원이 필수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료진료실 설치문제를 앞을 내다보고 조례에 삽입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항에는 오락실, 노인들이 가장 정신건강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락실 같은 것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조항도 넣어주시고 12항에 있어서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을 이왕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삽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조에 3항의 신설을 부탁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종사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3항에 신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종사자들 모든 임명에 대한

규정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게 조례안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10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노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까 고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되는 분은 누구나 다 복지회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규정을 65세 이상으로 하지 말고 “노인은 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입니다만 이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 노인회관으로써 위탁재정을 이 시하고 맺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체결된 것이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유효하다 하는 문구를 제3항으로써 경과조치에 대한 것을 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종합복지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회관으로써 그 규모가 지고는 복지회관이란 뜻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노인회관을 유효적절하게 노인네들이 전문분야 분들을 모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최대한의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시의원님들 박선호위원장님 더군다나 박종원의원님이 의원발의로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노인 2만 5천명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김인기 노인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사회국장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鄭得福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저희 안산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협조를 다하여 주시면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원의원님의 32분의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신 강남대학교 고양곤교수님, 군자사회복지회관장 김동성관장님, 노인회장 김인기회장님께도 아울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은 실제로 노인 당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인여러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혜택을 입게 된다는 것은 바로 가정과 사회안정에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노인 각자분들이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을 이용하시면 가정에서도 우러러 모시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른들님께 삼가 감사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가 '93년 5월 27일 조례 제490호로 폐지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산시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보다 나은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부합토록 하는

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검토의견으로는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을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노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시설의 구분” 조항을 만들어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지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규정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감사”를 또한 “지도감사”로 하고 연 1회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용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관에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회원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수당 및 운영비” 조항을 “운영비 보조”로 수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설치기준에 의거 기본 시설 내역에 상담실 및 면회실, 작업장,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을 삽입해야 되겠습니다.

부칙란에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현 위탁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사항은 걱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관리비목의 120만원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부족함으로 해서 1,200만원으로 인가해서 기타 복지사업 장비구입비 및 운영비 등은 의회의 안대로 걱정한 소요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6년도 노인회관 예산은 2,835만원이었습니다만 '97년도에는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399%가

증가된 1억 1,3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큰 발자취라고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칙안과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토론자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정득복 보사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석하여 주신 시민들의 의견서를 취합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휴식시간까지 기재하셔서 우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11時04分 會議中止)

(11時21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善浩 휴식시간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의원께서 네분의 전문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난후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鍾遠議員 교수님과 관장님, 회장님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여 주셨는데 제가 또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생각 못한 부분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를 위시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종합하여 가일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해서 교수님을 위시하여 관장님, 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盧世極議員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추의 여지없이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위원인 노세극의 원입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 앞에 모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노인복지회관 제정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과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우리사회를 볼 때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하게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또한 노인문제를 가정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영역으로 노인복지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 일환으로 오늘 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도 성원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3조 위치에 대해서 “복지회관은 안산시 성포동 589번지 성어공원내에 둔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현재 노인회관으로만 노인복지회관을 규정하기에는 앞으로 여지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안산시의 다른 장소에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까 고양곤교수님께서 노인들을 위한 급식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원곡동에 있는 군자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간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간 이런 부분이 따로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 노인복지사업에 일관성 있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위치 문제도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 가능할 사안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못 박는 것

은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삭제해 하든가.

아까 노인회장님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제4조, 5조의 경우도 보면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복지법 11조에 보면 복지시설 기관이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복지시설기관을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반드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고양곤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딱 규정해 놔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가 유보되거나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조문들, 여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한 일환으로써 “재가복지사업” 이렇게 딱 규정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파견사업, 단기보호사업 이런 것들을 아예 못 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안산시의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 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 놓는 것이 무방한지 어떤지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에다가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제 운영 이런 것도 하나 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6조를 보면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사실상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상 여가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노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런 여가시설 정도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기관으로써 탈바꿈하는 노인회관을 말아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간에 해왔던 관성이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천에 있는 중부노인복지회관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는 상당한 복지사들이라든가 복지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도맡아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하고는 여러차례 얘기들이 오가고 노인회와 상당히 깊숙한 진행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시측에서 나온 수정안을 보게 되면 6조 3항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인회에 위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이 나왔다 그래서 종사자 임용에서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다 재량권을 주기가 조금 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제한규정을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헌신성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만약에 노인회에 위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노인회가 위탁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실지로 노인회에 계시는 회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노인문제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정만으로 의욕만으로는 사업이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으로는 잘 안 될 거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연구점토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풍부한 지식이라든가, 간접경험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노인서비스 제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지 하는데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든 조례안 내용 자체만으로는 국한해 두지 마시고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안산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사업도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대한 총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가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사업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입안이 되고 그렇게 수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고양곤교수님이나 김동성관장님이나 김인기회장님이나 이 부분에 관계되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남대학교 고양곤교수 노세극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산시에서 살지를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부탁을 받았을 때 팩스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팩스 전송은 것만 놓고 노인복지회관을 안산시에서 세우는데, 저는 여기 나온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줄 알고,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도 하고 램프 얘기도 하고 전혀 안산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좀더 알았어야 될 터인데 죄송합니다.

기존의 시설에 소위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는 자체가 가보지를 앉아서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조를 고친다고 그러면 보다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안산시 노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둔다든지 포괄적으로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번지수까지 이렇게 하면 더구나 기존건물을 그대로 쓰는 인상을 받았는데 앞으로 새로운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규정으로 고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두번째 4조에 가서 재가노인복지사업 이것은 국가시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노인복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시설에 들어가시면 우선 노인들이 거부감이 있고 현재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에 잘 안들어가십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없어도 난방시설도 없는 싸구려 독방 하나 얻어가지고 계시는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 50만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또 시설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단체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교제가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에 계신 노인분들을 그대로 집에 계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는 게 국가적인 시책에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노인복지법에서 아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활성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 탁노소 사업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단기 보호사업이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마는 단기 보호사업은 일주일이나 혹은 한달정도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이 해외출장이나 또는 휴가를 받아서 장기 집을 비울 때 며칠에서 몇주일 동안 돌봐드릴 수 있는 요양시설을 갖춘 곳에 단기 보호사업을 하는 시설들이 요즘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지 가정봉사 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대로 찬성을 하고 아까 노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간보호사업이나 단기보호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였으면 법의 해석을 넓게 해서 시행할 수 있다하면 1년 또는 2년 후에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할 수 있다라는 법규정만 만들어놓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런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시행한다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산시 사정에 의해서 법안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조에 가서 위탁운영 핵심문제 같은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노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어르신네 능력만 가지고는 참 힘들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우선 노인문제를 볼 때 크게 나눠서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생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현재의 어르신네들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도와주지 않으면, 혹은 본인이 저축한 돈이 많이 있지 않으면 생계 곤란한 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60%이상이 스스로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가 저소득층 노인으로 자식이 돌봐주지 않으면 끼니를 먹지 못하는 그러한 노인이 굉장히

많은데 생계문제를 해결할 때 저소득층 노인에게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아니면 노인취업을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만들면 노인취업 상담알선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노후에 일을 하시는 것은 심신건강을 유지할 뿐이 아니고 용돈이나 소득을 벌어서 또한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취업활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취업 소개를 한다든지, 지금 노인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취업을 알선하면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취업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취업알선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르신네들이 공장에 돌아다니면서 취업시키기 힘듭니다.

또 한가지 건강문제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중풍이나 치매, 당뇨, 심장질환,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장기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기보호 대책을 의료진이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정부에 기업의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시설에 모시느냐, 재가노인을 필요로 한 소위 가정방문 간호사를 투입해서 하느냐 이것 우리 어르신네들이 하기에 힘듭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주택문제가 또 필요합니다. 앞으로 단독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른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녹지를 푸느냐, 아파트를 지어서 영구임대를 하느냐 분양을 하느냐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주택문제와 경제문제, 건강문제가 항상 같이 가게 됩니다.

여가활동 놀이게임하는 것도 젊은 사람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대학도 젊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또한 노인이 노인을 위해서 혹은 사회환경이나 교육이나 교통문제를 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안산시에 사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노인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과 노인회측과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노인회에서 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을 때에 앞으로 위탁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까마는 그럴 때에는 특별대책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40%나 50% 가까이는 노인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행정부나 의원님들 혹은 지역사회 대표자들 또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50%를 차지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다음 위탁됐을 때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요즘 노의원이 부천 얘기를 하셨는데 부천도 아마 YM에서 경영을 하실 겁니다.

노인복지회관도 전문적인 기술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 중앙대학, 이화여대, 동덕 모든 대학들이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회관을 맡아가지고 대학의 교수들,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대학의 자원을 많이 투입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법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YMCA, YWCA 혹은 김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경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아직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더군다나 더 전문가를 투입하기 때문에 안산시도 앞으로는 전문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공익법인체가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한 2~3년 동안은 노인회와 안산시 대표들과 운영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위탁기관으로 넘기시는 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혹은 노인복지 전체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안산시에서 해 나갈 것인가 사회복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각각 보는 견해가 다릅니다.

장애인을 보는 견해, 아동 청소년을 보는 견해 제가 노인복지분야만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보내실려면 우선 건강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다 생산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취업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혹은 사회활동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생활을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젊은세대와 소외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소외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취업활동이나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을 통해서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강한 노후생활, 생산적인 노후생활 통합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 다음으로 지금 당장은 되지는 않지만 노인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도 20년이 걸립니다. 건강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서 전문가를 투입한 그리고 그때그때 변화하는 노인들의 욕구변화를 욕구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안산시에서 사는 노인의 욕구가 무엇인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그때그때 개발하는 그러한 노인복지정책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委員長 朴善浩 관장님 말씀해 주시죠.

○군자사회복지회관장 김동성 고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위치같은 것은 장소를

어디다 하지 말고 안산시에 둔다 하면 안산시 어디든지 새로 짓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정관에도 법인사무실을 경기도에 둔다면 그냥 아무데나 뒀도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묶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노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해 놓으면 문호는 열리게 됩니다. 조례는 누구를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일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인건비도 얼마 얼마 하지 말고 운영비로 해 두면 법원에서 복지부에 맞춰서 합니다.

조례는 노인학교 이런 것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 재가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상담실, 공동작업장, 오락실을 했는데 그것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면 좋겠고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복지가 되고 경제가 앞설려면 자원봉사자 교육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탈선청소년도 제가 수원지방검찰청 전문위원으로 20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없이 칼질하는 이런 아이들은 법인이 떠 납니다. 그 애들을 가만히 놀리면 사고를 내요.

양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일을 시켜가지고 한다면 봉급을 줘야 됩니다. 일을 시켰는데 아가동산마냥 그냥시키면 이놈들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봉급도 주고 해서 돈이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법인이 열어 주거든요. 가정주부들도 그렇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남편 돈 잘벌고 아파트에 가만히 있다보면 너무 심심하거든요. 그

려면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나는 따분해서 어떻게 해” “너 인생 너가 살아야 돼”하고 끌고가서 휘황찬란한 데에 가서 춤추다보면 어느 남자한테 걸리다 보면 그게 탈선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들도 끌어내어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켜서 어른들 중풍걸린 사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갑니다. 그러면 키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휠체어에다 태워가지고 공원구경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한부분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만약에 안산에 탈선 청소년들이 심각하다 이 겁니다. 심각한데 탈선청소년 하나 상담하다 보면 그 애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부모가 잘못이고 사회가 잘못이다. 그러면 이 애들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할려면 전문법인이 부모를 상담해야 되고 또 노름하는 아버지를 상담해서 가정으로 아버지, 어머니 모습으로 되어졌을 때 이 아이가 달라진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하나만 해가지고는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돈은 있어도 자식들하고의 관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속병이 있는 사람, 마음이 외로운 사람 여러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래도 전문가가 되어야만이 그런 분야 할 수 있고 어르신네들이 하다보면 저도 그래요. 얼마 안있다가 저도 노인정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일생동안 전문사업을 해 왔다고 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 가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전문인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관장을 하고 법인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

는 지금 실질적인 일은 못하고 있어요.

취도 늙으면 피만 생긴다고 힘 빠지지 지시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젊은 인력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우리보다 굉장히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지 말고 전문화 사업을 해서 어른들 끌고루가, 제가 안산시 노인정을 돌면서 강의를 합니다. 같은 값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여러 어르신네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하자. 그래야지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열받고 가뜩이 몸도 약한데 더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할 때는 누구 어느 편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 시의원들도 여기에다 모든 열정을 퍼붓는 겁니다.

저도 이런 실질적인 일을 맡으면서 노인들한테 이런 것쯤은 이렇게 해서 좋게 해 나가자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복지사업 전망에 대해서, 제가 안산의 복지사업, 우리나라의 복지사업 청사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장애인교회 이렇게 해 놓으면 맨날 장애인만 모여가지고 평교인이 이렇게 볼 때 “장애인만 있는 데 뭣하러 거기를 가” 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면 땅값 떨어질까봐 서로 반대하고 그래요. 가뜩이나 장애인도 억울한데 왜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 같이 끌어안자 이거예요.

노인들도 왜 노인들만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것 같이 해가지고 어르신네들도 얘기보고 싶은 사람은 어린이집에 가서 아기도 봐 주고 또 청소년들과 함께 전부 어우러져서 사는, 그래야 복지사회의 전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교수님들이나 여러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10만에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에는 개발도상국이라 50만이 넘었는데 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전무예요.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것 앞으로 큰 계획을 가지고 백년을 내다보고, 나중에 가서 다 른데 사회복지관, 노인회관 때려부술 정도가 될 때 그때 안산에는 활성화 있게 움직여 나가는 선진복지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지금까지 안된 건 새로 여기 땅도 있잖아요.

의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가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의원님들이 얼마나 복지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의원님들은 바쁜데도 계속와 가지고 대화하느라고 제가 침이 마르고 그런 적도 있어요. 얼마나 보람도 바람직하느냐 그래서 안산시 복지의 전망에 대해서는 그냥 남의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른들도 모시고 의원님들도 모시고 또 전문가들도 하고 실지 안산에서 사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 큰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그맣게 지었다가 2년 후에 부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중차대한 복지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안산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노인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산시노인회장 김인기 고교수님께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얘기를 말씀 잘해주셨고 노인회관이 조례안에 대한 거를 근본 취지를 벗어나 광범위한 복지회관의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엄청난 규모의 종합복지관, 아까 관장님이 말씀 했지만 모든 게 전문성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여기 와서 공청회를 하고 우선은 노인회관 289평 남짓한 공간에다가 최소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설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가운데에 우리 노인들이 일어난거지 노인복지관 전체를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소재지 문제는 고교수님이나 김관장님께서 다 찬동을 해주셨고 또 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꼭 국한해서 성포동 몇번지에다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안산시 어디든지 노인회관을 짓는다는 이런 포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자.

그러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무척 어려운거다, 노인분들이 할 수 있겠느냐 등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고 또 노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모르는게 아니올시다. 저희는 지금 현재 성포동에 있는 노인회관에 스페이스가 남은 장소에다가 최소한도의 노인복지시설을 하자는 가운데 조례안이 필요하다,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부결이 되고 그래서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종합복지회관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대대적인 시설을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겠다는 건, 물론 저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전문분야도 아니고 모르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기관의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또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노인복지사업을 최소한도로 노인회관에다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신다고 할 때에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타당성 있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노인들 머리가지고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도 각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기용해서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 나갈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올시다.

다른 기관 여러분들한테 맡긴다 해도 그분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에 전문교육을 가지고 하나하나 채용을 해서 각 기관에 운영관리를 감독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물론 상식이 없다보니까 감독도 소홀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심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노인회관의 최소한 시설만큼은 노인들 스스로가 각 기관의 전문분야를 채용해서 하나하나 관리 감독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지어주신다 할 적에 그때 가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 저희 노인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외하지 마시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도 스스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일터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노인분한테 한번 맡겨본다는 취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여러분들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노인복지 관계자 및 시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의견서를 꼭 검토해 보니까 무료급식을 해 주십시오, 옥외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목욕탕 시설을 해 주십시오, 시설 이용자의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해 주십시오, 거의가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된 의견에 대해서는 대표로 한분씩만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진행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기님 의견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강신기 제가 강신기입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고명하신 세분과 성의를 보여주신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별로 박식이 아닙니다. 요즘에 연령적으로 봐서 매스컴이라든지 지상물을 통해서 봤을 때 통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마는 대강 말씀드려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하고 다만 선진국의 노인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로 봐서 구호에 그치는, 다시 말해서 임기응변적인 시책, 어떠한 인기를 끌기 위한 시책, 이러한 것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야, 이제는 많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 있구나, 많이 깨어 있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생만 지독하게 하고 과거의 경험과 체험과 경륜으로써 말을 하고 있지만 나부터도 배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내 부모를 섬기는데 어떤 방법이 필요하나, 사회에서 학교에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여기에 좋은 안이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우선 금년부터 또 내년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나마 실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지시해 주시고 연설을 해 주신 여러분들의 체험과 경륜과 높은 평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안 이것을 지금까지 경륜이 깊은 분들에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조례안을 결정해 주시고 아까 노인회관문제, 번지문제 이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재정으로 봐서는 2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2만 5,000명 노인들에게 복지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사실 복지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있는 회관이 그래도 수익을 들여서 그만한 회관 지었으면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 2년 여기서 복지시설 하다가 안산시의 재정이 좋아서 더 훌륭한 복지회관을 지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경험과 전문가님들이 설명한 것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이나마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을, 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강신기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한분만 더 들겠습니다. 조금전 고양곤교 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잔여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뜻에 부합되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덕성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이덕성 제가 이덕성을시다. 오늘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조례 공청회에 제가 참석해서 본즉 그야말로 시의원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복지회관 설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공청회를 배풀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좀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벌써 안산에도 노인회 조직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러한 공청

회를 열었다는 것은 좀 늦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운 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조항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안을 잘 만들었고 이것을 볼 때에 시의원들이 그야말로 안산 노인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타에 못지 않는 안산시가 될까 이렇게 많은 염려를 해 주셔서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을 볼 때 대단히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 젊은 교수들께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안산 노인사회복지를 위해서 타 지역에 못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예측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는 참 난관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타지역 전국적으로 볼 때에 위탁하는 관계를 보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위탁해서 지금까지 서울에서나 부산, 대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왕왕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에는 타지와 달라서 노인창설이 10년이 넘은 이 마당에서 오늘날 우리 노인회 운영도 어느정도 전진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많고 한 점을 볼 때 이것이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제가 봐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보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기틀을 잘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규정을 그대로 살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강신기회장님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태두리만 갖고 실천이 없는 일은 이제 그런 시기 다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만 잘 짜고 실체는 없는 알맹이 없는 행사는 이제는 다 지나버리고 오늘날에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우리 생활에 알맞는 모든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고 또는 현재 시대에 살아서 노인사회에서도 무엇인가 새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될려면 첫째 가까운 데서 부터 우리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자면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하루속히 실천에 옮길려면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종목에 따라서 실천에 옮겨 준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善浩 이덕성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박종원의원님부터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鍾遠議員 오늘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노인여러분, 시민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양곤교수님과 김동성관장님, 김인기회장님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의회는 오늘의 종합적인 의견을 항상 수렴하여 안산시의 종합적인 사회복지문제를 가일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다음은 고양곤교수님께서 정리 한번 해 주시죠.

○강남대학교 고양곤교수 오늘 여러 어른들 뵈오니 반갑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시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공청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니까 안산시 노인복지가 앞으로 어느 우리 한국의 도시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저희들이 노인전문관계 회의를 할 때 여의도에 있는 국

회의사당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초청하면 국회의원들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신한국당에서 부르고 자민련에서 부르고 국민정치에서 부르고 또 바로 지난 주일에 국회의원 김병태의원을 중심으로 한 20여명이 국회내에 노인복지대책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우리 전문가들과 같이 앉아서 노인복지를 연구합니다.

안산시도 의원님들과 노인대표 되시는 분,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 안산시의 노인복지가 앞으로 장족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강신기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가족들이 노인들을 부양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는 사실 노인복지기능이 가정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겠는지 재가노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심신의 기능장애 없이, 심신기능 장애가 있어도 집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그대로 유지 보완해 주는 가족의 부양기능의 유지 및 보완 혹은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 나와 계신 어른들은 건강하십니다.

그러나 거동불편해서 출입을 잘 못하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한 10%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또 여기에 나오지 못한 약 2만 5,000여명의 안산시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장서서 일을 같이 해 주시면 젊은 시의원님들과 어르신네들 더불어 잘사는, 제가 시청을 보니까 정의로운 안산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안산시 구호가 노인들 대접하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더불어 노인을 공경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안산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산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선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이어서 김동성 군자사회복지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사회복지회관장 김동성 하여튼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 너무나 발전적입니다.

시의원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앞으로는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누구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큰 틀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놔다가 몇 년간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진문화 발전을 할려고 그러면 틀이 작아서 안되면 안됩니다.

조례를 정할 때 어르신네들 의견도 많이 경청했고 시의원님들도 머리가 다 좋으신분들이고 하니까 이 조례를 크게 오래 쓸 수 있도록 지금 가만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문제 그것을 갖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안산은 엄청나게 발전해야 됩니다.

몇평 안된다고 그래요. 한 300평이라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도 운영이 안되는데 그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조례로 큰 틀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노인복지가 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 어르신네들 또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朴善浩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던 김인기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노인회장 김인기 박선호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보사분과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복지관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유례없는 이러한 안산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울러서 노인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세를 가다듬어 국가에 순응하여 일하는 노인 정말 노력하는 노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노인복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치중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노인회관에 그러한 소소한 조례가 아니라 광범위한 노인복지회관, 다시 얘기해서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안산시의 광대한 복지회관에 조례의 기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빌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善浩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관계전문가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노인복지관계자 및 시민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점들이 많아 유익한 공청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안산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안산시 전 의원들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時22分 閉會)

○參席者

保社環境委員長 朴善浩

安山市議會議員 盧鈴鎬
安山市議會議員 朴鍾遠
安山市議會議員 金英雄
安山市議會議員 金章勳
安山市議會議員 盧世極
安山市議會議員 李晚承
安山市議會議員 韓萬植
安山市議會議員 黃鎬明
保健社會局長 鄭得福
강남대학교수 고양곤
君子社會福祉會館長 김동성
安山市老人會長 김인기